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7월

선교편지 제 16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두 주간 오랜만에 '입'이 매우 호강을 했습니다. 밥 도둑이라고 할 만한 한국산 '깻잎 장아찌' 와 '고등어' 구이가 식탁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에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구입한 '김' 또는 '건어물' 등을 여행 선물로 나누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지인 선교사께서 아주 색다르게 '깻잎' 과 '냉동 고등어'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이곳에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류를 구입하지만, 단 한 번도 채소와 냉동 식품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구할 수 없는 채소와 냉동 식품을 여행 가방에 실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분 덕분에 금년에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맛있는 깻잎 장아찌와 기름진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먹고 싶은 음식들이 떠 올라 향수를 자극합니다. 기후와 식습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동안 익숙했던 평범한 음식들을 이곳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는데 '콩나물 무침' 이나 '시금치 무침' 과 같은 밑반찬이 왜 그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자주 먹었던 크림 치즈를 바른 향긋한 '베이글'도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에 항상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베이글' 굽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서, 실제로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만 어지럽혔을 뿐, 그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도저히 재도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쇠고기'를 먹은 적이 다섯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고기일지라고 조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정육점에서 살 수 있는 고기의 부위와 형태가 다릅니다. 얇게 썰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곳의 요리 방법에 따라 주로 덩어리 형태로 잘라서 팔기 때문에 '국'에 넣고 끓일 때 외에는 마땅하게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 보다도 이곳 쇠고기의 맛이 그전에 먹었던 쇠고기 맛과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래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질겨서 인내를 가지고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전에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텍사스에서 오신 미국 선교사의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곳에서 쇠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가족 혁대' 를 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레촌 바보이' 라는 통 돼지 구이를 매우 즐겨 먹는데, 저희 입 맛에는 별로 맞지 않아 찾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위 'k-문화'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이 이곳 음식에 고유 명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곳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k-Drama'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정육점에서는 돼지 고기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덩어리 형태로 팔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Bacon Slice'라는 용어로 삼겹살과 유사하게 썰어서 팔더니, 이제는 마침내 'Samgyupsal'이라는 명칭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삼겹살 구이 전문 식당이 곳곳에 생기기 시작 했는데, 'Samgyupsal'과 이곳 현지어인 'Salamat (감사합니다)' 과 합성된 'SamgyupSalamat' 식당입니다.


저희 부부도 고향의 맛을 기대하며 디고스에 개업한 'SamgyupSalamat' 식당을 방문했었는데, 아쉽게도 도저히 삼겹살 구이 식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여서 실망만 가득 안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맛있는 현지 음식을 발견하여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시니강 (Sinigang)'이라는 한국의 김치찌개와 유사한 맛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즐겨 먹는 '국'입니다. 갈라만씨, 레몬 등을 사용해 '신' 맛을 내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토마토, 오크라, 가지, 고추, 무, 양파 등에 큰 생강 덩어리를 넣고 오래 동안 끓여 만든 매운 맛과 신 맛이 그윽한 국입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돼지 고기 또는 새우를 넣은 후, 이곳 음식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이곳의 복합 화학 조미료인 '아지노모토 (MSG)'가 듬뿍 들어가면 꽤 깊은 맛을 내는 '시니강' 이 만들어집니다. 이 맛에 익숙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현지 음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머리 속에는 먹고 싶은 고향의 음식 목록이 빼곡하지만, '시니강'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1-32)

 이곳의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외모가 출중합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동자와 눈썹이 새까맣고, 쌍꺼풀과 큰 눈은 선해 보이고, 피부는 약간 검지만 건강미가 넘칠 정도로 탄탄해 보입니다. 실제로 1952년부터 시작된 'Miss Universe'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4명의 최고의 미인 우승자를 배출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Miss Universe'가 개최되는 날이 되면, 마치 월드컵 축구에 열광하듯이 온 나라가 들떠 있고, 모두들 자신이 'Miss Universe'에 당선이라도 된 듯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젊은이들이지만, 아쉽게도 일반적으로 20~25세를 전후해서 급격하게 외모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시선을 도무지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치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청년 중에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불러서 늘 감탄을 하게 만들었던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영구치인 앞 이빨이 빠져 창피해서 못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해서 어릴 적부터 충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치아가 빠지고, 썩음으로 인해 외모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주식은 '쌀 밥'입니다. 그들의 '밥' 사랑은, 이제는 옛 말이 되었지만 '밥심으로 산다' 는 한국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만 충분하면 소량의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모두들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접시를 '밥'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반찬은 모자라도 밥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흰 쌀 밥'을 매일 많이 먹다 보니, 어린 나이에서부터 '비만' 체형으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날씬했던 청년들이 작은 키와 더불어 볼 품 없는 몸매로 변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쌀 밥 과 비만 등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성인병'으로 안과 밖이 급격하게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볕, 깨끗하지 못한 물, 수저가 아닌 손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 등 공중 위생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잦은 음주와 흡연 등으로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외모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심하게 해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의 '셔윈 (Sherwin)' 형제의 가족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약 5년전, 셔윈 형제는 부인과 여자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연히 여자 아이는 그들의 딸로 짐작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셔윈' 부부의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을 미루어 딸이 아니라 손녀 딸 정도로 생각이 되어,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셔윈' 형제는 외모와 달리 이제 겨우 제 큰 아들과 같은 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 이후로 셔윈 가족은 단 한 번도 결석을 하는 일이 없이, 정말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들의 성실함을 늘 칭찬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갑작스럽게 최근 '셔윈' 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병 간호로 인해서 세 식구 모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심방을 가서 확인해 보니, 셔윈 형제의 두 콩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할 정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병원은 국립 병원이라고 불리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환경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셔윈' 형제도 병실이 아닌 병원 복도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한지 2주가 지난 다음에 병실로 옮겨 졌습니다. 환자복도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침구류 일체를 개인별로 집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좁은 병실의 다른 환자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어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불결하기 까지 합니다.



몇 년 전 '뎅기 모기'에 물려, 혈소판 (Platelet)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중에 감사하게도 예정에 없던 1인실이 비게 되어, 비싸지만 매우 좋은 (?) 환경에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원을 하고 보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단 하루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음식의 질과 화장실 등의 주변 환경 때문에 병원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게 되었고,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들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아서 사용한 수액을 교체하기 위해 찾아 다녀야 하는 등, 도무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입원을 통하여 병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병이 생길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입원 6일만에 혈소판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3일 정도 더 경과를 봐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까지 써 주고 도망을 치듯 퇴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하루 하루를 견디기 힘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감사하게도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고, 마침내 완쾌 되었습니다

'셔윈'의 병실로 심방을 갈 때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벌써 가슴이 복 받쳐 오름을 느낍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손을 붙잡고 기도 할 때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가족과 심방대원들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물을 쏟는 안타까움은 병 중에 있는 '셔윈'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도 능력이 없는 종을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하는 내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곳 선교지까지 왔는데, 제 부족함으로 인해 이들이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요즘,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보다 현지 교인과 주변으로부터 더 많은 부고 소식과 병 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매우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자신을 더욱 더 돌아보게 됩니다. 심히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행 3:6)**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